

#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㉓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올림)



가 나타나 북방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곧 뒷날의 우환을 염려하여 반드시 와서 으르고 공격하였다. 왜(倭)는 바다 1만리의 크고

작은 섬에 제각기 살면서 유사시에는 쉽사리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무사하면 곧 순풍에 배를 몰아 마음대로 와서 노략질을 하니, 마치 마루 아래의 등어가 항상 골치인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항상 강하여 쇠퇴함이 없으면 곧 한나라 선비들을 놀려 그 땅에 군림하고 왜구를 배척하여 그 바다를 봉쇄할 것이니, 가히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을 주머니 속에 넣고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곧 바로 적의 병사가 멀리로부터 말을 몰고 와서 온 나라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고을을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소위 지리적인 이익은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되는 바이다.

昔者, 蚩尤氏即帝位於 鹿, 屹蓬陳兵於 岐, 藍侯建四侯於殷地, 奄薄姑王誘三監而駿武庚, 幾撓周室, 徐偃王抑宗周而王濟也之東朝三十六國, 後世, 遼金清者, 皆起於舊朝鮮[地]而有中原. 高句麗之方盛也, 強兵百萬, 南擊吳越, 北掠幽燕齊魯, 恒虎威於漢方. 百濟則踰渤海而略遼西 晉平, 越草海而占越州, 新羅[則]鯨濤萬里, 陳雄兵於明石, 刑白馬而盟赤嶺. 此皆, 我強而易於攻彼, 是得地利也.

옛날에 치유씨는 탁록에서 제위에 올랐고, 옛날 임금은 빈·기에 병사를 주문시켰으며, 남후는 은나라 땅에 네 제후를 세웠고, 엄박오왕(奄薄姑王)은 삼감(三監)을 피고 무경(武庚)을 부추켜 주나라 왕실을 거의 휘어잡았으며, 서언왕(徐偃王)은 종주(宗周)를 누르고 황지(黃池)의 동쪽을 다스려 서른 여섯 나라로부터 조회를 받았다. 그 뒤에 요(遼)와 금(金) 및 청(淸) 등이 모두 옛 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중원 땅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가 막 번성하려고 할 때에는 강병이 1백만으로서 남방의 오와 월을 치고 북방의 유연(幽燕) 및 제(齊)(齊) 등국 싸움을 일으키는 등 항상 한나라 땅에 위협을 세웠다. 백제는 발해를 뛰어넘어 요서와 진평을 공략하였고 초해를 건너 월주를 점령하였다. 신라는 1만리 길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 명석(明石)에 뛰어난 병사들을 주문시키고 백마를 잡아 적관(赤關)의 맹세를 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 표리부동한 황제의 모습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그랬어 소소업은 할아버지 소개에게 잘 보여야 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다. 할 아버지 앞에서는 성품이 분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용모와 거동이 아름다웠고 대을 잘하며 슬퍼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행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할아버지 소개는 손자 소소업을 몹시 아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긴 행동이었다. 늘 감정을 숨기고 거짓을 수식하며 몰래 비루하고 사악한 생각을 품었으며 주위에 있는 여러 소신배와 의식(衣食)을 함께 하고 늘 같이나기를 같이 하였다. 제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소장무가 알고서 그의 행동거지를 금하고 그의 용도(用度)를 조절하였다. 이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돈 쓰는 것을 제한 받지 몰래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였다. 소소업이 황제의 손자이고, 황태자의 아들인 까닭에 돈을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었다. 이 돈으로 따로 자물쇠와 열쇠를 만들어서 밤에 서주(西州)의 뒷편 협문을 열고서 주위의 사람들과 여러 영서(營署, 군영과 관서)에 가서 음

모두 우리가 강하면 저들을 공략하기 쉬운 것이니 이것이 지리적인 이익이다.

若夫檀氏之世, 有俞之寇, 列國之時, 箕氏蒙東胡之侵, 丸都焚蕩, 后妃被虜, 平壤敗沒, 而公侯世族及士民之被掠者二十八萬. 黃山將殞, 泗[ ] ( )城陷, 白馬江頭, 胡馬爭嘶, 落花岩畔, 芳魂亂飄, 忽汗之滅, 而渤海之民放散四處, 雖謀復興圖興, 數百餘年而終致其殘滅. 夫勝朝以後累百年間事, 誰肯 顏而過問哉! 降至壬辰之役而八城魚肉, 丙子之禍而州里蕪然! 今世之人, 溺於虛文, 聞於衰弱, 棄其道而咀宋儒之餘唾, 貶其君而比外邦之臣僕. 蓋, 歷觀近世之往事, 傍察今代之趨勢, 舍大節而謀小(欲) [慾], 擲公戰而圖私益, 公(宣) [室] 以日循其家, 漁細民以肥其腹, 而以區區零之事, 然醉中談夢, 蝸角爭勝, 滔淫之勢, 日下而不振, 已無我刀而謀賴於人, 此勢已孤弱而併亡其本性也. 後世若有強者, 代清而興則, 必奪其主而誘其臣, 郡其地而隸其民矣. 今日之所以, 溺於安逸而茫然無爲者, 豈非後日, 吁飢寒之因耶? 余之所謂, 不出數百年而必爲強 所敗者, 豈矯矯之語耶? 噫!

무릇 단군의 치세 때는 설유(설유)의 노략질이 있었고, 열국시대에는 기씨(箕氏)가 동호의 침략을 입어 환도성이 깎그리 불타고 후비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평양이 패망하여 몰락하니 공후(公侯)와 세족(世族) 및 선비와 백성 등을 노략질해 간 숫자만 28만이었다. 황산벌에서 장군이 순명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어 백마강 머리에서 오랑캐 말들이 다투어 울고 낙화암의 물가에는 꽃다운 녀들이 어지러이 떨어져있으며, 홀한(忽汗)의 멸망으로 발해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비록 부흥을 도모하기를 수백여 년이었으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여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고려조 이후 수백년 간의 일을 그 누가 가까이 나서서 얼굴을 붉히며 물어 오겠는가? 아래로 임진왜란의 어려움에 이르러서는 팔도가 진장이 되었으며, 병자호란의 재앙을 만나서는 고을들이 쓸쓸하였다. 더욱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헛된 글에 빠져 하릴없이 쇠약해지고, 자신의 도는 버리고 송나라 색인을 짙은 침을 골랐으며, 자신들의 임금을 깎아 말하여 외국 신하의 몸중에 비끼고 있다.

대저 근세의 지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세대의 추세를 그 곁에서 관찰해 보면, 큰 계책은 버리고 작은 욕심만을 피하며, 공동을 위한 싸움은 내팽개치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도모하며, 조정을 쪼 뜰이 이로 가문을 다듬거리며, 가난한 백성들을 약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가져다 희롱그래 한 눈매로 취중에 꿈 얘기하듯 하면서 쓸데없는 승부나 다투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 이재(彝齋) 권돈인(權敦仁)과 세검정(洗劍亭)이야기

■ 향촌 권오창 (본원 저문위원)



(1783년 정조 7년 ~1859년 철종 10년) 공의 이야기를 들려보자.

공은 순조 12년에 급제하였고 그 후 청(淸)에 등지사 서장관으로 다녀왔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 호조관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철종 10년 연산(連山)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4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 살기로 결심하고 끝으로 한양을 등지기 전에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서 작별사건이 나누기로 하였다.

추사와는 당시 절친한 친구사이었다. 추사는 일찍이 18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거쳐 이조참판까지 이르렀다. 그가 24세때에는 그의 부친을 따라 청(淸)에 가서 북경의 유력한 유학자들과 교류하여 새로운 학문에 접하고 시대흐름에 앞서가는 선각자였다.

이재 권돈인공은 실의에 빠져 추사 김정희를 만나 낙항의 뜻을 밝히니 추사는 진정으로 국구 만류하고 이재공의 재질을 칭찬하면서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된다.

추사는 등과의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줄타니 '내가 하려는 데로하게' 하고 헤어졌다.

추사와 약속한 어느 날에 이재공은 세검정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북한산을 향하여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때에 세검정에서 추사가 이재공을 알아보고 정자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재공을 큰소리로 불으면서 어디가느냐고 물었다.

추사는 반가워하며 이재공을 정자리에 까지 데리고 왔다. 그곳에는 시회(詩會)가 개최되는 자리인데 추사는 이재공을 절친한 친구로서 소개하면서 이재공의 인성과 재주를 칭찬하고 나라 일을 하기 위하여 큰 뜻을 품고 있으나 등과를 뜻하고 여러번 낙방하여 그 뜻을 접고 이제 북한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자 한다는 사연을 좌중에 알렸다.

그 정지에는 영안부원군 김조순 영의정 김재환 병조판서 이상황 등이 있었으며 당대의 고명한 시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김조순은 후일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기반을 닦은 분이기도 하다.

이 말을 들던 김조순이 이재공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포기하지말고 아직 젊었으니 다시 도전하여 보라고 격려했다. 술잔을 권하면서 추사와 더불어 여기에 앉아서 시를 지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엔 양화도에서 시회가 개최되니 그곳까지 참석하도록 초청하였다.

과연 그 날 이재공의 문장과 작사실력은 막강한 권세가의 자리에서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그리하여 이재공의 인품과 문필에 김조순은 크게 감탄하였다. 그 해 겨울에 시행된 황갑별시에 이재공은 당당히 급제하였다. 그 후 이재공은 고숙승 진하여 많은 치적을 남기고 영의정까지 올랐다. 이재공의 막역한 친구였던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일면을 보면 그는 당대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7월24일 현재)

■ 총재단회비		소 계 5백만원
△권길상(부총재)	1백만원	
△권영선(부총재)	1백만원	
△권봉도(부총재)	1백만원	
△권영한(부총재)	1백만원	
△권무탁(부총재)	1백만원	
■ 중무위원회비		소 계 60만원
△권정택(고양, 대종원)	20만원	
△권오중(서울, 대종원)	20만원	
△권기갑(이천)	20만원	
■ 대의원회비		소 계 40만원
△권경환(영천, 별장공파)	10만원	
△권오창(원주, 대종원)	10만원	
△권오창(태천, 대종원)	10만원	
△권희홍(대전, 대종원)	10만원	
		소 계 600만원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훈고로써 실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명필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추사체를 개척하여 청(淸)에게까지 알려져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림에 있어서는 대나무와 난초 산수화를 잘 그렸다. 또한 그는 북한산 비봉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금속학자이기도 하다.

이재 권돈인과 추사 김정희의 사이에 세검정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우정은 오늘날까지 연구에 회자되고 있다.

(끝)

## 別世

# 權寧贊 前樞密公派會長 別世



(개인사임)·권오현 (국제해양기술 대표이사)·권오준(대한항공 상무)씨와 사위 노영록(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씨 등이 있다.

안동권씨 추밀공파조 단소 설단

- 1994년2월7일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에 설단지를 정하고 2월 12일 12일 화산부원군 중종(회장 권이현)에서 회의를 열고 설단의 부지제공을 결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내 행정권 권위자인 호는 진고(眞古) 권영찬(權寧贊) 전 추밀공파대종회장이 1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건국대 제9대와 10대 총장을 연임했다. 6·25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8권의 저서가 발간되고 논문과 연구보고서 50여권이 있다. 1993년 추밀공파대종회장을 맡으면서 추밀공,충헌공단소 설단을 추진하였다. 유족은 부인 송종숙씨와 아들 권오신

탕하게 연회를 열었다. 그뿐 아니었다. 황태자인 그의 아버지 소장무가 병들어 앓자 겉으로는 근심스런 얼굴을 하면서 울부짖으며 쓰러지니 보는 사람이 울어서 목이 메게 하였지만 사택으로 돌아와서는 즉시 기뻐하고 웃으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무덤을 시켜서 아버지가 빨리 죽도록 기도하며 빌도록 하였다. 그 아버지가 죽자 그는 드디어 황태손이 되었다. 황태손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인 무제 소개가 병이 들었고 점점 위독해 지자 자기 처인 하비(何妃)에게 희(喜, 기쁘다.)'라는 글자를 가운데에다 크게 써 놓고 그 주변에 다시 희(喜)자를 36개 써서 보냈다. 아마도 곧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이므로 기쁘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소개는 죽으면서 뒷일을 소소업에게 부탁한다.

드디어 소개가 죽고 대렴(大殮)이 처음에 끝나자마자 황제가 오른 그는 할아버지의 여러 가장기녀들을 불러서 여러 음악을 준비하고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 할 아버지 재궁(梓宮)이 내려가자 황제가 된 소소업은 바로 작별하고서 갑자기 병이 났다고 하면서 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합문(閤門) 안에서는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인파를 울리며 퍼져 나갔다.

물론 소소업은 황제의 자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향세하였다. 황제가 된 다음에는 비루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기에 쫓겨난 것이다.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